

2025년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국립정신건강센터와 함께하는 레인보우 마음동화 프로젝트
Light Our Lives

느루문화예술단이 국립정신건강센터 갤러리M에서 예술과 치유, 마음건강을 위한 <레인보우 마음동화 프로젝트> 전시를 선보인다.

3년차를 맞이한 올해 프로젝트는 '7가지 색의 무지개빛'에서 시작한다. 각 색이 가지는 심리적, 추상적 이미지를 예술과 치유로 연결하고 개인의 경험적, 정서적 영역으로 확장하여 스스로 내면을 탐색하고 심리적, 사회적 치유와 성장을 이끌어내고자 한다.

첫번째 사업인 전시 <Light Our Lives>는 김아롬새미, 어느나래, 이승연, 이은수 4인의 청년작가들이 참여해 예술작품을 바라보는 '치유적 미술감상'을 통해 예술과 치유의 관계를 조명하고 예술의 역할과 따뜻한 가능성을 모색한다.

'아로안'이라는 내면의 세계를 통해 치유의 과정을 보여주는 **김아롬새미**. 자연과 개인적 경험을 소재로 지친 현대인의 감정에 다가가 위로를 건네는 **어느나래**. '금붕어'이라는 캐릭터로 무의미한 폭력에 대한 이야기를 표현해내는 **이승연**. 무지개 빛과 색을 통해 크고 작은 도형과 공간, 마음을 채워나가는 **이은수**.

작가 4인은 각자의 독창적인 시선으로 창조해낸 '단 하나뿐인' 세상을 선보이며 저마다의 색채의 빛을 통해 캔버스 위에 고유한 세계를 구축해나간다.

이번 전시를 통해 희망을 전하는 무지개처럼 관람객의 마음에 따뜻한 '행복의 빛'이 켜지기를 소망한다.

#1.김아름새미 작가노트

나에게 있어 그림을 그리는 일은 일종의 내면을 치유하는 과정이다.

어릴 때 부터 상상하기를 좋아했다. 끝임없는 상상은 나를 광활한 상상의 공간으로 이끌기도 하고 어둡고 허무한 공간으로 밀어넣기도 한다. 그 공간들은 나의 내면과 맞닿아 있었다. 나의 내면이 건강하면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것들이 공간을 채웠고 내면이 어두우면 그에 맞는 것들이 공간을 채웠다. 나의 치유는 그 공간을 이해하고 그려내는 것에서 부터 시작되었다. 먼저 만난 것은 '애쉬', 잿더미 같은 허무함에서 태어난 표정없는 얼굴이었다. 허무함, 우울함, 불안등을 만났을 때 그 감정에 먹히지 않기 위해 아름답고 좋은 것들을 들여 놓았다. 무성한 식물들이 모여 숲이 되고 동물들이 모이자 정글이 되기도 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로안'이라는 내면의 세계이다.

'아로안'에는 나의 감정과 에너지, 상상력이 결합된 형태들이 존재한다. 검은 색은 허무와 부정을 의미한다. '애쉬'는 허무에서 태어난 표정없는 얼굴이다. 그 위에 긍정을 의미하는 살아있는 존재들이 이리저리 뒤섞여 하나의 공간을 이룬다. 중력이나 땅과 바다의 경계가 사라진 내면의 공간. 가끔 에너지와 상상력이 필요할때 그 공간에 들어가 긍정의 존재들을 꺼내기도한다. 아로안은 나에게 있어 거대한 피난처이자 에너지와 불안을 담아두는 내면의 공간이다.

#2.어느나래 작가노트

어느나래는 자연과 개인적 경험을 소재로 '평화로운 행복의 세계'를 창조한다. 반복되는 삶의 기쁨과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도피처로서 그림을 선택했으며, 그 속에 오직 고요하고 평온한 세계를 구축해 왔다. 작가는 행복을 일시적인 즐거움이 아닌, 특별한 일이 없어도 지속되는 평온한 상태로 정의한다.

어느나래의 화면에는 일상적 행동을 하는 모습이 자주 등장한다.

인물들이 차를 마시거나, 자연 속에 누워 있거나, 산책을 즐기며 시간을 보낸다. 이는 작가 자신의 일상을 반영한 장면으로, 가장 평범한 행위 안에 진정한 행복이 깃들어 있다는 믿음을 담고 있다. 어느나래의 풍경은 감상자에게 일상 속에서 잊힌 행복의 감각을 다시 일깨워주는 공간이다.

그의 그림은 현실과 초현실이 공존하는 시각적 내러티브로 구성된다. 동화적이고 우화적인 장면들은 감상자가 이야기에 참여하고 자신만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풀밭 위에서 잠든 인물 곁에 모여든 동물들, 곰과 비버가 함께 차를 마시는 장면 등은 작가가 추구하는 '행복'의 본질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형식적으로는 밝고 조화로운 색채가 두드러지며, 부드러운 곡선과 수평 구도, 점묘법적 표현을 통해 시각적 편안함을 극대화한다. 이는 감상자가 작품 속에서 자연스럽게 안정과 위안을 느끼게 하는 조형적 장치이다. 또한 작가는 한국 작가로서의 정체성을 토대로, 전통 한국화의 요소와 민화적 상징을 현대적으로 해석해 동시대성과 전통성을 함께 구현하고자 한다.

어느나래의 작업은 지친 현대인의 감정에 조용히 다가가 위로를 건넨다. 모든 존재가 평화롭게 공존하는 이상적 세계는 감상자를 내면의 평화와 행복을 찾는 여정으로 초대한다.

#3. 이승연 작가노트

우리가 금붕어처럼 금방 잊어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나쁜 일도, 나를 괴롭게 하는 기억도 모두 잊어버리고 지금 이 순간만을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말이지요. 이러한 소망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마음 속에 품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금붕인(金-人)’은 바로 그런 소망을 담아 탄생한 캐릭터입니다. 금붕어의 머리와 인간의 몸을 가진 금붕인은 그 자체로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금붕어의 머리는 지금 이 순간의 감정과 행복에 집중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소망을, 인간의 몸은 여전히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짊어져야 할 무게와 책임을 상징합니다. 이 캐릭터는 현대인이 느끼는 고통과 상처를 은유적으로 표현하면서도, 동시에 치유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금붕인을 둘러싼 세포 모양들은 우리의 다양한 감정을 시각화한 요소입니다. 각각의 세포는 우리가 느끼는 슬픔, 기쁨, 두려움, 희망과 같은 감정을 상징하며, 금붕인의 존재와 어우러져 감정의 복잡성을 표현합니다. 이 세포들은 단순히 장식적인 요소가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 존재하는 감정의 움직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금붕인의 주변을 떠다니는 이 세포들은 고통과 치유가 공존하는 인간의 정서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며, 관객들이 자신의 감정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금붕인을 통해 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소박하지만 또렷합니다.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불안이나 지나간 과거의 상처보다, 지금 이 순간의 감정과 시간을 온전히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금붕인은 우리에게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것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상기시켜줍니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 점점 더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끊임없이 과거를 반추하고 미래를 계획하며 살아가지만, 정작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느끼는 일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금붕인을 바라보는 관객들이 잠시나마 지금 이 순간에 몰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차게 걸어가는 금붕인을 보며 지나간 슬픔을 내려놓고, 앞으로의 걱정을 잠시 멈춘 채 현재의 따뜻함과 아름다움을 느껴보길 바랍니다.

삶은 마치 금붕어의 수조처럼 제한된 공간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우리는 반짝이는 순간들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금붕인이 전하는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작은 위로와 영감을 주길 바랍니다.

#4.이은수 작가노트

어릴 때 우연히 보았던 무지개가 저의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청소년 때에 몇 년간 중국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경험과 즐거운 일들도 많았지만 긴장되고 외롭고 힘들 때도 많았습니다

그럴 때면 늘 어릴 때 본 무지개가 생각났고, 그때마다 저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무지갯빛이 가득한 그림을 그리면 긴장되었던 마음이 편안해지고 즐거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놀이공원, 문구점, 과자가게 등이 크고 작은 무지갯빛도형이 되었고, 모든 공간을 무지개 색으로 채워나갔습니다.

저는 무지갯빛에서 아름다움과 마음의 평안을 느낍니다

제가 그린 그림을 통해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기쁨과 소망이 스며들면 좋겠습니다.

제가 누리는 밝은 빛이 세상 모든 곳에 깃들길 소망합니다